

STRATEGY 21

통권42호 Vol. 20, No.2, Winter 2017

해양사가 새뮤얼 엘리엇 모리슨(Samuel Eliot Morison)의 해전사 서술과 그 현대적 의미 - 『제2차 세계대전기 미국 해군 작전사』를 중심으로 -

김 현 승*

I. 머리말

II. 모리슨의 생애와 저술활동 : 해양사가에서 해군 제독으로

1. 초기 활동
2. 콜럼버스 향해 탐사 프로젝트
3. 해군 장교 임관과 해전사 집필 활동

III. 모리슨의 역사관과 『해군 작전사』 서술

1. 모리슨의 역사관 : 바다의 파크만
2. 대중성의 강조
3. 객관성의 추구

IV. 『해군 작전사』에 대한 평가

1. 당대사 서술에 따른 한계
2. 지휘관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비평

V. 맺는말

* 해군 소령, 해군사관학교 작전학과, 충남대학교 국제지역학(중국지역전공) 박사과정.

I. 머리말

새뮤얼 엘리엇 모리슨(Samuel Eliot Morison, 1887-1976, 이하 모리슨)은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반세기가 넘게 활약했던 미국의 역사가이자 해양사가(海洋史家)이다. 모리슨은 당대 정력적인 활동을 펼친 역사가로서, 19세기 미국 낭만주의 역사학의 대표적 인물이었던 윌리엄 프레스콧(William H. Prescott)과 프란시스 파크만(Francis Parkman)의 계보를 잇는 역사가로 평가받고 있다.¹⁾ 역사가로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프레스콧이나 파크만과 달리 모리슨은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의 역사학과 교수로 40년간 재직했다. 또한 미국역사학회(the 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회장, 매사추세츠역사협회(the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회장을 역임하면서 미국 역사학계의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모리슨은 왕성한 저술활동으로도 유명하여 40여 편의 저작과 100여 편에 달하는 논문을 남겼으며, 비소설 부문에서 풀리처상(the Pulitzer Prize)을 2회나 수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모리슨의 업적 및 저작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이『제2차 세계대전기 미국 해군 작전사(*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15 Vols.)』(이하 『해군 작전사』)이다. 1947년부터 1962년까지 15년에 걸쳐 총 15권의 방대한 분량으로 출간된 『해군 작전사』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 해군이 펼친 작전 및 전투 활동을 세부적이고 입체적으로 서술한 해전사이다. 이 책에서 저자 모리슨은 전투현장에 직접 종군(從軍)한 경험을 바탕으로 작전 및 전투과정을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 시리즈는 후속 작이 등장할 때마다 다수의 서평이 발표되는 등 언론과 학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여러 차례 재판을 거듭하여 대중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러한 해전사 분야의 업적으로 인해 대학 강단의 역사가였던 모리슨은 미국 해군예비군 소장(rear admiral, USNR)에 오르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모리슨의 사후, 미국 해군에서는 해전사 연구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새로 건조한 군함에 새뮤얼 엘리엇 모리슨함(USS *Samuel Eliot Morison*, FFG-13)이라는 함명(艦名)까지

1) Samuel Eliot Morison, "Prescott: The American Thucydides," *The Atlantic Monthly*, Vol.200, Issue 5 (Nov., 1957), p.165; David Levin, *History as Romantic Art: Bancroft, Prescott, Montley, Parkma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p.vii.

부여하였다.²⁾

그렇다면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로서, 그리고 역사가로서 이미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던 모리슨이 해전사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전쟁사 서술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해군 작전사』를 그가 어떠한 역사관에 근거하여 서술하였는가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라 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저술이 이후 해전사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도 관심을 끈다. 그러나 모리슨의 역사관이나 해전사 서술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해외 연구의 경우에도 모리슨의 생애와 연구 업적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해전사 서술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³⁾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동원(動員)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리슨이 자원하여 해전사 서술을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하여 그가 『해군 작전사』를 저술하게 된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먼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모리슨의 생애와 연구 활동을 알아보고 당시 그가 어떠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는지 소개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직후 그가 『해군 작전사』 집필을 추진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전장에 종군하면서 『해군 작전사』 서술을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였는가를 알아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먼저 그가 발표했던 역사 관련 논평과 소론을 중심으로 역사 서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그가 강조한 역사서술 원칙들이 『해군 작전사』를 집필하는 데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이어서 IV장에서는 『해군 작전사』의 한계점 역시 짚어본다. 마지막으로 V장에서는 그의 저작이 해전사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후 해전사 연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2) 1979년 취역한 새뮤얼 엘리엇 모리슨함은 미국 해군에서 20여 년간 현역으로 활동 후 2002년 퇴역하였다. 이후 미국 해군에서 보관 중이던 함정을 2015년 터키 해군이 인수하여 현재까지 현역함으로 운용하고 있다. “USS *Samuel Eliot Morison* (FFG 13),” http://www.navy.mil/submit/display.asp?story_id=10113 (검색일: 2017.5.10).

3) 해외의 연구 성과로는 David Herold, “Samuel Eliot Morison and the Ocean Sea,” *Dalhousie Review*, Vol.54, No.3 (1974), pp.741-748; Walter Muir Withehill, “In Memoriam: Samuel Eliot Morison(1887-1976),” *The New England Quarterly*, Vol.49, No.3 (1976), pp.459-464; P. A. M. Taylor, “Samuel Eliot Morison,” *Journal of American Studies*, Vol.10, No.1 (1977), pp.13-26; Wilcomb E. Washburn, “Samuel Eliot Morison, Historian,”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36, No.3 (Jul., 1979), pp.325-352; Gregory M. Pfitzer, *Samuel Eliot Morison's Historical World*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1) 등이 있다. 다만 후술할 『콜럼버스 전기』로 인해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Christopher Columbus)의 활동 및 항해와 관련된 국내 연구 성과에서는 모리슨의 저작을 거의 빠지지 않고 인용하고 있다.

II. 모리슨의 생애와 저술활동: 해양사가에서 해군 제독으로

1. 초기 활동

모리슨은 1887년 매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보스턴(Boston)에서 태어났다. 모리슨이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아마추어 역사가이자 무역상으로 활동했던 할아버지 엘리엇(Samuel Eliot)의 영향이 컸다. 모리슨이 바다에 대한 애정을 기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역시 그의 할아버지였다.⁴⁾ 모리슨은 해마다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있는 할아버지의 여름 별장에서 지내면서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웠으며, 할아버지로부터 요트 타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그는 14세 때 처음으로 요트를 몰고 바다로 나갔으며, 첫 항해를 나갔을 때의 기분을 “처음으로 내 자신이 무언가를 멋지게 해냈다는 감격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이후 평생 동안 그는 취미인 요트타기와 본업인 역사 연구를 같이하며 살았다. 이렇게 모리슨은 어려서부터 바다를 접할 기회가 많았으며, 바다에 애정은 자연스럽게 이후 해양사에 대한 관심으로 발전했다. 모리슨은 “바다에 관해 연구하고 바다에 관한 글을 쓰는 것은 나에게 일종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고 밝히기도 했다.⁵⁾ 이러한 모리슨의 바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후에 『매사추세츠 주 해양사(The Maritime History of Massachusetts, 1783-1860)』, 『대양의 제독: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생애(Admiral of the Ocean Sea: A Life of Christopher Columbus)』, 『유럽인의 아메리카 대륙 발견기(The European Discovery of America, 2 Vols.)』 등을 저술하게 되는 원천이 되었다. 또한 모리슨은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군의 역사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모리슨이 해군에 관한 역사를 처음 접한 것은 1894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데카튜어와 서머스(Decatur and Somers)』⁶⁾라는 책을 받았을 때였다. 이때부터 그

4) Walter Muir Withehill, “In Memoriam: Samuel Eliot Morison(1887-1976),” p.459.

5) Emily Morison Beck, ed., *Sailor Historian: The Best of Samuel Eliot Moris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1977), p.xxiii.

6) 데카튜어는 제2차 바르바리 전쟁(Second Barbary War), 미영전쟁(War of 1812)에서 활약한 미국 해군의 제독이다. 서머스는 제1차 바르바리 전쟁(First Barbary War) 중 전사한 미국 해군의 함장이다. Clark G. Reynolds, *Famous American Admirals*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02), pp.91-93.

는 해군사(naval history)에도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의 해군사에 대한 관심은 총 15권으로 구성된 『해군 작전사』의 집필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모리슨은 『존 폴 존스: 어느 뱃사람의 전기(*John Paul Jones: A Sailor's Biography*)』 및 『매슈 페리 제독 전기(*Commodore Matthew Calbraith Perry*)』⁷⁾ 등과 같은 해군 장교의 삶을 다룬 전기를 저술하기도 했다.

어릴 적부터 가지고 있던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모리슨은 1908년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하였고, 1912년에는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졸업 후 잠시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일하다가, 1915년 하버드 대학교의 강사로 임명되어 역사학 강의를 시작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이던 1918년 초에는 군에 입대하여 육군 전사반(Army Historical Section)에 근무를 지원했으나 탈락하여 포병대에서 복무하였다. 군생활 기간 중에는 종전 후 열린 파리강화회의(Preace Conference at Paris)의 실무보좌역으로 잠시 참여하기도 했다. 짧은 군생활을 마치고 학교로 복귀한 모리슨은 모교에서 강의와 저작활동을 이어가며 본격적으로 해양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⁸⁾ 그의 해양 분야에 관심이 최초의 연구 성과로 나타난 것이 『매사추세츠 주 해양사』의 출판이었다. 이 책에서 모리슨은 포경(捕鯨), 대구 잡이 등의 수산업, 해상교역·운송활동, 선박건조기술 발전 등과 같이 바다를 무대로 이루어진 당대인들의 활동을 집중적으로 조망했다.⁹⁾ 이 책을 저술하는 과정에서 모리슨은 자신에게 바다에 대한 애정을 학술적 연구로 승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다고 한다.¹⁰⁾ 이후 약 10년간의 시기는 모리슨에게 매우 바쁜 시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빠듯한 대학 강의일정을 소화함과 동시에 미국사 전반 및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에 관해 활발히 연구했다.¹¹⁾

7) 존 폴 존스는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본래 영국 해군에서 복무하였으나 미국 독립전쟁 시에는 대륙 해군에 입대하여 영국 해군에 대해 싸웠다. 그는 플램보로 헤드(Flamborough Head) 해전 시 열세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 미국 해군의 영웅이 되었다. Samuel Eliot Morison, *John Paul Jones: A Sailor's Biography*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9). 매슈 페리 제독은 미영전쟁에서 활약하였으며, 미국 동인도함대 사령관을 역임했다. 1853년 무력시위를 통해 미일 화친조약을 체결하여 일본을 개항하게 한 인물로 유명하다. Samuel Eliot Morison, *Commodore Matthew Calbraith Perry, 1794-1858*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

8) P. A. M. Taylor, "Samuel Eliot Morison," pp.13-14.

9) Samuel Eliot Morison, *The Maritime History of Massachusetts, 1783-1860*,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21).

10) Emily Morison Beck, ed., *Sailor Historian*, p.147.

2. 콜럼버스 항해 탐사 프로젝트

『매사추세츠 주 해양사』가 해양사에 대한 자신의 재능을 깨닫게 해주는 시발점이었다면, 모리슨을 대표적 해양사가의 반열로 올려놓은 것은 1942년 출간된 『대양의 제독,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생애(*Admiral of the Ocean Sea: A life of Christopher Columbus*)』(이하 『콜럼버스 전기』)였다.¹²⁾ 이미 1920년대부터 모리슨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과 항해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까지 콜럼버스에 관한 여러 연구 성과가 있었으나 대부분 부정확한 문헌기록을 토대로 콜럼버스의 행적을 미화하거나 그를 신대륙 발견을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이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연구실 책상에 당시 항해기록과 해도를 펼쳐놓고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콜럼버스의 진면목을 완전히 밝히긴 어렵다고 확신했다. 모리슨은 콜럼버스의 신대륙 탐험의 내적동기를 이해하고 그의 항해경로와 행적을 정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콜럼버스가 이동한 항로를 실제로 따라가면서 그가 이동한 바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해안선과 섬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¹³⁾ 그러나 당시 모리슨은 대학 강의에 바빴고, 그의 구상을 지지해 줄 기업가나 학교의 예산지원도 없었기에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없었다.

1930년대 중반부터 모리슨은 본격적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까지 어떠한 경로로 항해하였으며, 그의 뱃사람으로의 면모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1935년, 모리슨은 하버드 대학교 개교 30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콜럼버스의 항해경로를 추적하는 프로젝트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모리슨은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콜럼버스의 4번에 걸친 신대륙 항해 중 그가 발견하고 방문한 장소가 어디이며, 그가 어떠한 방식으로 항해하고 선단을

11) 이 시기 모리슨의 대표적 저작으로는 *the Oxford History of United States*, 2 Vo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With Henry Steele Commager, *the Growth of the American Republ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The Founding of Harvard Colle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5); *Harvard College in the Seventeenth Century*, 2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Three Centuries of Harvard, 1636-193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등이 있다.

12) Samuel Eliot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A Life of Christopher Columbu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2).

13) Emily Morison Beck, ed., *Sailor Historian*, pp.1-2.

동쪽으로 이끌었는지 실제로 확인해 보고자 했다.¹⁴⁾ 1937년부터 모리슨은 하버드 대학교 연구재단 및 사회 각계각층의 재정지원을 받아 콜럼버스 항해를 재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탐사단이 이용할 선박은 카피타나(Capitana)호와 메리 오티스(Mary Otis)호, 2척의 범선으로 선정되었고, 모리슨은 항해전문가 및 연구원 10여 명으로 단원을 구성했다. ‘하버드대 콜럼버스 항해 탐사단(Harvard Columbus Expedition)’이라 명명된 이 프로젝트에 따라 모리슨은 1939년 8월부터 1940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범선을 타고 항해하며 대서양을 두 차례 횡단했다.¹⁵⁾ 먼저 동부 해안을 출발한 항해 탐사단은 콜럼버스의 1차 탐험항로를 반대로 되짚어가면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에 도착한 후 포르투갈, 스페인을 방문했다. 돌아오는 항해에는 카나리아 제도(Canary Islands)를 거쳐 콜럼버스가 2차 항해 중 발견한 카리브 해(the Caribbean Sea)의 여러 섬들을 둘러보았다. 항해 탐사 중 모리슨은 콜럼버스가 배를 멈췄던 정박지와 발견 후 명명했던 육지 대부분을 직접 답사하고 확인했다.¹⁶⁾

항해 탐사를 마친 모리슨은 콜럼버스에 관한 집필을 마무리하는 데 몰두했다. 1942년 초 그는 방대한 문헌연구 결과에 항해 탐사 중 직접 수집한 각종 실사자료를 더하여 『콜럼버스 전기』를 출판했다. 이 책에서 모리슨은 콜럼버스의 항해경로를 세밀하게 설명하는 동시에, 별도의 장을 할애하여 당시 바다에서의 일상, 선원들의 생활상 및 콜럼버스 시대에 널리 알려진 항해술 등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은 실제로 현장을 답사한 경험과 전문적인 항해지식이 없이는 서술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¹⁷⁾ 『콜럼버스 전기』는 출판되자마자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¹⁸⁾ 학술성과 대중성을 고루 갖춘 역사서로 평가받아 모리슨은 폴리처상까지 수상하였다. 콜럼버스 항해 탐사의 성공

14)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p.xv-xvi.

15) 콜럼버스 탐사 항해를 위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모리슨에게 일 년간 휴가를 주었고, 여러 기업에서는 장기항해 중 필요한 각종 소모품 및 식료품을 지원했다.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 역시 모리슨의 탐사항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출항 시 축하전문을 보내주었고, 해안경비대 함정이 모리슨의 탐사단을 호위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국무부를 통해 각국 대사관에 지시하여 모리슨 탐사단이 외국 항구에 방문했을 때 필요한 각종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해주었다. 결과적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은 모리슨의 탐사항해가 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중적 성공을 거두는 데 기여했다.

16) 탐사단의 자세한 항해경로는 “Life Resails Columbus’s Routes,” *Life*, Vol.8, No.13 (25 March 1940), pp.102-106을 참고.

17) Morison, *Admiral of the Ocean Sea*, pp.167-196.

18) “The Great Enterprise,” *Time*, Vol.39, No.9 (02 Mar., 1942), p.78-80; Garrett Mattingly, “Professor with a Roll,” *New Republic*, Vol.106, No.10 (09 Mar., 1942), pp.337-338; William McFee, “The Discoverer,” *Nation*, Vol.154, No.11 (14 Mar., 1942), pp.314-315.

으로 모리슨은 현장 검증적 역사 서술의 효용성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러한 방식을 『해군 작전사』의 서술에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3. 해군 장교 임관과 해전사 집필 활동

모리슨이 『콜럼버스 전기』를 발표하기 직전, 일본이 기습적으로 진주만(Pearl Harbor)을 공격함에 따라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다. 이에 모리슨은 미국 해군의 상세한 활동을 보여주는 역사서를 쓰기로 결심했다. 이때는 콜럼버스 향해 탐사와 접목시킨 『콜럼버스 전기』가 큰 성공을 거둔 직후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현장 검증적, 현실 참여적 역사 서술 방법을 해전사 분야에도 적용하여도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전사 서술은 그가 유년 시절부터 가져왔던 바다와 해군에 대한 애정의 발로이기도 했다. 1942년 초 모리슨은 미국 해군성 기록역사국(Director of Naval Records and History, Department of Navy)앞으로 해군 함정에 동승, 실제 전투에 참여하면서 미국 해군의 활약상을 역사로 남기고 싶다는 편지를 보냈다. 해군성에서 이 제안을 거절하자,¹⁹⁾ 모리슨은 친분이 있던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했다. 1942년 3월, 모리슨은 “해양에 대한 실무적 지식과 경험을 고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해양사를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였다.²⁰⁾ 루스벨트 대통령은 하버드 대학교 동문이었으며, 8년간이나 해군성 차관을 역임하는 등 해군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루스벨트 대통령이 모리슨의 제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하버드 콜럼버스 향해 탐사단의 활동과 얼마 전 출판된 『콜럼버스 전기』의 성공 때문이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해군성에 지시하여 모리슨을 해군 장교로 정식 임명하고, 해전사 집필을 위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군 함정에 동승하고 육상의 해군기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다. 당시 모리슨은 55세의 적지 않은 나이였으나 역사 서술이라는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국

19) 당시 해군의 기록역사국에서는 부국장 더들리 녹스(Dudley Knox)의 지휘 아래 자체적으로 역사 기록 수집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리슨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20) Thomas J. Culter, “Amphibious Historian,”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0, Issue 2 (Feb., 2014), p.94.

가의 전쟁 수행에 기여할 수 있음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했다.²¹⁾

루스벨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모리슨은 곧 해군 예비군 소령(Lieutenant Commander, USNR(United States Navy Reserve))²²⁾으로 정식 임관되었다. 필요한 행정적 준비가 마무리되자 모리슨은 1942년 여름부터 해군의 전투함정에 동승, 전장에 종군하면서 본격적으로 『해군 작전사』 서술을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다. 이 작업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작전에 참가하는 해군함정에 동승하여 생활하면서 작전 및 전투상황을 직접 목격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록했다. 이후 해당 작전·전투가 종료되면 육상 사령부로 이동하여 그 작전·전투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기록들을 수집했다. 여기에는 해당 작전을 지도한 상급 사령부의 작전계획(作戰計劃) 및 각종 지시문서, 참가 부대 및 함정이 작전·전투 수행 중 타전한 상황전보(電報), 종료 후 전과(戰果) 및 피해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고한 전투경과보고서 등이 있었다. 문헌기록 수집이 끝나면 필요한 사료(史料)를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했다. 또한 문헌기록을 보충하기 위해 작전·전투에 참가한 주요 지휘관을 대상으로 구술기록을 수집하여 활용하기도 했다.²³⁾ 전쟁이 끝난 후에는 그동안 수집한 문헌기록 뿐 아니라 독일 및 일본 측의 문헌기록, 상대측 주요 지휘관을 인터뷰한 구술기록 등을 추가로 수집, 참고하여 전쟁 중 작성했던 초고를 수정하고 다듬었다. 또한 전쟁 기간 중 방문하지 못했던 주요 해전의 현장을 답사하며 전투현장을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1942년 여름, 모리슨은 뉴욕(New York)을 출발하여 영국으로 향하는 수송 선단을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구축함(USS *Buck*)에 동승하여 첫 임무를 시작했다. 이 항해 중 모리슨은 독일 유보트(U-Boat)의 공격으로부터 상선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선단호송작전(convoy operations)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실제로 확인했다. 또한 물속에 숨어있는 유보트를 찾아내 공격하는 대잠전(anti-submarine warfare)이 얼마나 어려운가도 깨달았다.²⁴⁾ 이후 1942년

21) Gregory M. Pfitzer, *Samuel Eliot Morison's Historical World*, pp.171-172.

22) 미국의 예비군 제도는 우리의 예비군 제도와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식 군복무를 마치면 예비군에 편입되기는 하지만 더 이상 군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미국의 예비군은 최일선 전투부대인 상비군을 지원하기 위해 평상시부터 다양한 전투지원부대, 전투 근무지원부대에서 근무하는 병력을 말한다.

23) 그러나 일부 해군 지휘관들은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들이 전투 중 책임소재를 가리는 데 이용될지도 모른다는 우려하였기 때문에 모리슨의 인터뷰를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John B. Hattendorf, "The Uses of Maritime History in and for the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56, No.2 (2003), p.17.

가을에는 순양함 브루클린함(USS *Brooklyn*)으로 이동, 미군의 북아프리카 상륙 작전인 ‘햇불작전(Operation Torch)’을 참관했다. 햇불작전에 관한 초고 작성이 끝나자 1943년 봄에는 남서태평양으로 이동하여 당시 막바지로 치닫고 있던 ‘과달카날 전역(Guadalcanal Campaign)’에 종군했다. 1943년 11월부터는 상륙함으로 자리를 옮겨 일본에 대한 반격작전의 시발점이 된 길버트 제도 및 마셜 제도 상륙작전을 참관했다. 1944년 6월에는 호놀룰루함(USS *Honolulu*)에 승조하여 사이판 및 괌 상륙작전인 ‘약탈자 작전(Operation Forager)’에 동행했다. 이후 테네시함(USS *Tennessee*)으로 옮겨 탄 모리슨은 1945년 4월에 벌어진 오키나와 상륙작전에 종군하였으며, 일본 항공기의 자살 공격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기도 했다. 모리슨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될 때까지 군함을 타고 오대양을 누비며, 미국 해군이 수행하던 작전·전투를 실제로 목격하면서 『해군 작전사』서술을 위한 준비를 했다.²⁵⁾ 전쟁이 끝난 직후 모리슨은 대령으로 진급하였고, 해군 당국의 지원 아래 『해군 작전사』의 출간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1947년 모리슨은 제1권을 출판하였으며, 이후 매년 1권에서 2권씩 후속작을 내놓았다. 『해군 작전사』의 집필이 한창이던 1951년 모리슨은 소장(rear admiral)으로 진급함과 동시에 해군에서 퇴역하였으나, 이후에도 계속해서 해군 당국의 지원을 받으며 『해군 작전사』의 완결을 추진하였다.²⁶⁾

Ⅲ. 모리슨의 역사관과 『해군 작전사』 서술

1. 모리슨의 역사관 : 바다의 파크만

모리슨은 프란시스 파크만을 “북아메리카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라 생각하고 그의 역사 서술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옹호하였다. 모리슨은 자필로 ‘가장

24)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I, *The Battle of the Atlantic*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7), p.xv.

25) Samuel Eliot Morison, “The Experiences and Principles of an Historian,” in *Vistas of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p.33-34.

26)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Biography of Rear Admiral Samuel Eliot Morison, 9 July 1887-15 May 1976,” www.history.navy.mil/research/library/research-guide/morden-biographical-files-ndl/morden-dios-m/Morison-Samuel-Text.html (검색일: 2017.5.11).

존경하는 역사가'라 쓴 파크만의 사진을 연구실 책장에 항상 놓아두었다고 하며,²⁷⁾ 손수 파크만의 저작 중에서 뛰어난 글들을 선별 및 편집하여 『파크만 선집(*The Francis Parkman Reader*)』을 내놓기도 했다.²⁸⁾ 특히 모리슨은 『역사에 대한 전망(*Vistas of History*)』, 『육지 곁에, 바다 곁에(*By Land and By Sea*)』등에 수록된 역사학에 관한 소론에서 파크만의 역사서술 방법론을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이를 극찬하였다.

나의 롤모델은 바로 18세기 북미대륙의 지배를 둘러싸고 벌어진 프랑스와 영국의 경쟁, 그리고 인디언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프란시스 파크만이다. ‘역사가는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리스 역사가 폴리비우스(Polybius)의 격언을 신봉한 파크만은 자신이 서술하는 역사의 무대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직접 방문했다. 예를 들어 인디언의 역사를 쓰기 위해 서부 인디언 부족의 하나인 수족(Sioux Indians)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의 실상을 경험하기도 했다. 파크만이 대자연의 위대함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을 읽는 독자들은 북미 대륙의 울창한 숲에 자신이 실제로 서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파크만이 문헌기록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실제 경험이 바탕이 된 사실적인 묘사에 치밀한 문헌기록 연구를 더함으로써, 역사서술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²⁹⁾

모리슨은 파크만은 전문적 훈련을 받은 역사가는 아니었지만 객관적 역사 연구에 뛰어났으며 입체적 사실 묘사에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고 평가했다.³⁰⁾ 파크만은 역사 서술 시 먼저 문헌기록을 토대로 대상 주제를 연구한 다음 실제 사건이 벌어진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기존 문헌연구 성과에 현장답사에서 체득한 경험과 감상을 접목시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파크만은 내러티브식 서술방식을 활용하여 해당 주제를 입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모리슨은 이러한 파크만의 역사 서술 방법론은 학술적 완성도와 현장감 넘치는 문학성을 모두 갖춘 것이라고 호평했다. 그리고 모리슨은 스스로를 “바다의 파크만”이라 자부하며 파크만의 낭만적, 현실 참여적

27) Gregory M. Pfitzer, *Samuel Eliot Morison's Historical World*, p.280.

28) Samuel Eliot Morison, ed., *The Francis Parkman Reader*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5).

29) Morison, *Vistas of History*, p.27.

30) 이러한 파크만에 대한 모리슨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파크만의 역사인식의 저변에는 인종주의적 편견이 깔려있었다는 것을 강조한 국내연구는 양홍석, “역사가 프란시스 파크만(Francis Parkman)의 서부와 인디언관,” 『미국사연구』, Vol.30 (2009), pp.35-60을 참고할 것.

역사서술 방법론은 바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확신했다.³¹⁾ 이러한 파크만의 전통을 이어받은 모리슨은 역사 서술 시 대중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요소는 『해군 작전사』 전체를 관통하는 모리슨의 역사 서술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대중성의 강조

대중성은 『해군 작전사』 서술 시 모리슨이 가장 강조한 요소였다. 모리슨은 평소부터 역사는 대중과 유리되면 안 되며, 대중들이 읽지 않는 역사는 쓸모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를 위하여 모리슨은 역사가 자신이 먼저 삶의 현장에서 뛰어들어 견문을 넓히고 사건의 실상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것은 모리슨이 『콜럼버스 전기』를 준비할 때부터 가졌던 신념이었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해전사 집필을 위해 군함에 동승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그는 역사가는 현실 참여적 활동을 통해 먼저 연구하고자 하는 대상과 사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역사 서술을 해야만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 실제적 모습을 대중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역사가가 연구실 안에서 문헌 연구에만 천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으며, “역사가는 탐험가”가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³²⁾

또한 모리슨은 “역사가는 끊임없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주제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일반 대중들을 대상으로 글을 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³³⁾ 이러한 그의 주장은 독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문적 분야를 다루는 『해군 작전사』 서술 시 더욱 강조되었다. 모리슨은 평소부터 바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해양사를 연구하긴 했지만, 해전사는 그에게도 생소한 영역이었다. 따라서 대중들에게 해군의 활동상을 알기 쉽고 정확

31) Morison, ed., *The Francis Parkman Reader*, pp. ix-xi.

32) Samuel Eliot Morison, *The European Discovery of America*, Vol. II, *The Southern Voyages, A.D. 1492-161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 ix.

33) Samuel Eliot Morison, “History as a Literary Art,” in *By Land and By Sea* (New York: Alfred A. Knopf, 1953), pp. 294-295.

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먼저 지상군과 대비되는 해군의 특성과 지상 전투와는 다른 해전 고유의 전투 방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해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무기장비의 성능 및 탐지장비의 특성, 전투 시 세부 운용전술 등도 이해해야 했다. 이를 위하여 모리슨은 해군함정에 동승하는 기간 동안 해군 작전 및 전술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관련자들에게 문의하고 연구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육상의 훈련부대나 무기·장비 연구개발 부서도 방문하여 관련된 배경지식을 습득하기도 했다.³⁴⁾ 모리슨은 이러한 현실 참여적 활동을 통해 서술 주제를 완전히 이해하고 이를 독자들이 알기 쉽게 전달하려 노력했다.

마지막으로 모리슨은 역사가는 독자들이 해당 주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내용을 서술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그는 특정 주제를 설명하거나 상황을 묘사할 때 문학성을 갖춘 내러티브식 서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미국의 역사가들은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 집중한 나머지 역사 서술의 문학적 측면을 소홀히 한 감이 없지 않다. 물론 과거에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역사가의 가장 큰 의무기는 하나, 그들은 이 명예에 치중한 나머지 역사를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일종의 순수과학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따라 대중들은 역사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역사를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³⁵⁾

모리슨은 『해군 작전사』에서 내러티브식 서술 방식을 활용하여 치열한 전투의 현장을 극적으로 묘사했다. 이러한 서술은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실제 현장에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는 몰입감을 제공해 주었다. 아래 사보 해전(The Battle of Savo Island)의 전투과정에 대한 모리슨의 묘사는 전투 중 각 부대의 행동을 시간 순으로 단순히 나열하는 전투경과 보고서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감과 긴박감을 확인할 수 있다.³⁶⁾

34) Morison, *Naval Operations*, Vol. I, *The Battle of the Atlantic*, p.xi v.

35) Morison, *By Land and By Sea*, pp.290-291.

36) 모리슨은 사보섬 해전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미국 해군대학에서 비밀로 발간한 Richard W. Bates, *The Battle of Savo Island, August 9th, 1942: Strategical and Tactical Analysis, Part I*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1950)을 주로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위 보고서는 해전의 배경, 각 부대별 행동, 해전 경과, 사후 조치 및 교훈 등이 500여 페이지가 넘는 분량으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 내용이 많을 뿐 아니라 및 개조식으로 서술되어 가독성이 떨어진다.

캔버라함의 당직사관과 견시(lookout)가 전방에 나타난 함정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어둠 속의 실루엣을 응시하던 순간, 일본 함대가 쏜 24발의 포탄이 캔버라함(HMAS Canberra)을 덮쳤다. 이 명중탄으로 전투를 지휘하던 함장은 치명상을 입었고, 곁에 있던 포술장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포탄을 맞은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곧 정전이 발생하여 모든 포의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어서 일본 함대가 발사한 어뢰 2발이 캔버라함의 우현을 강타하였고, 선체를 뒤흔드는 요동과 함께 우현으로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5분도 안되어 캔버라함은 불길에 휩싸인 채 전투불능 상태로 빠지고 말았다.³⁷⁾

또한 그는 『해군 작전사』에서 치열한 전투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해군 장병들의 일상생활과 주변 환경도 낭만적 문체를 이용하여 묘사했다. 아래의 해전이 시작되기 전 고요한 바다의 풍경을 묘사하는 부분에서는 전투의 격렬함과 대비되는 다분히 낭만적인 서술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남동쪽으로부터 약간의 미풍이 불고 있으나 바다는 고요하다. 상현을 갓 지난 달빛 아래 미국 함대는 일본 정찰기에게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산타 이사벨(Santa Isabel)섬의 해안선을 감싸며 미끄러지듯 나아가고 있다. [...] 밤 11시, 전투준비를 알리는 정보가 함정 전체에 울려 퍼진다. 그러나 함대가 어둠 속에 몸을 숨기기에는 남서쪽에 떠있는 달빛이 너무 밝은 모양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목동자리의 아크트루스(Arcturus)는 정면에서 밝게 빛나고 남십자성(Southern Cross)은 어느새 수평선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 북쪽으로 눈을 돌리니 견우성(Altair)과 직녀성(Vega) 및 테네브(Deneb)가 우리에게 익숙한 여름의 대삼각형을 이루며 반짝인다.³⁸⁾

이러한 전투의 격렬함과 대비되는 바다에 대한 낭만적 묘사는 대중들에게 해군 장병이 자신들과 동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밤바다와 별을 바라보며 감상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해준다. 또한 이러한 낭만적 서술은 이를 읽는 독자에게 해군 장병이 되어 남태평양의 해상에서 작전하는

37)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V, *The Struggle for Guadalcanal*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9), pp.35-36.

38)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VI, *Breaking the Bismark Barrier*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0), pp.182-183.

군함에 직접 타고 있다는 일체감 역시 제공해 해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리슨은 서술할 해전을 직접 경험한 다음 이를 알기 쉽게 재구성하고 독자들이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문학적으로 서술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대중들이 해군의 작전과 해군 구성원들의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그 실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3. 객관성의 추구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리슨은 『콜럼버스 전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증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400여 년 전 콜럼버스의 항적을 비교적 객관적이고 상세하게 추적한 바 있었다. 그러나 전쟁사를 서술할 경우에는 군사자료의 특성상 활용 가능한 사료가 제한되고 사료의 주관성이 강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객관성 확보가 제한되었다. 일반 역사의 서술과는 다른 전쟁사 서술 시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은 이미 2,000여 년 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저술한 투키디데스(Thucydides)가 강조한 바이기도 했다.³⁹⁾ 이는 해전사 서술 시에도 마찬가지여서 바다에 드리워진 ‘전장의 안개(fog of war)’를 걷어내고 해전 양상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관련 사료들을 신중하게 평가하고 활용해야 했다. 특히 군 관련 문서는 그 특성 상 기록 당사자가 자신이 직접 관련된 전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 의식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과대 묘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록자가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실수를 축소하거나 성공을 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⁴⁰⁾ 모리슨이 『해군 작전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사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 이러한 작전 과정 중 생산된 방대한 분량의 문서들이었다. 모리슨은 이 문서들은 해군에서 생산한 공식 문헌기록이긴 했지만 그 진실성에 의문

39) “한편 전쟁 중에 행해진 활동에 관한 서술은 단순히 내가 본 것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목격한 내용까지 종합하여 내용을 서술 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다른 사람의 목격담의 경우에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가능한 한 꼼꼼한 검증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다.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목격하는 사람들이라도 편견이나 기억의 차이에 의해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ucydides, Sir Richard Livingstone, ed. and trans.,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Oxford University Press, 1943), p.22.

40) John E. Jessup, Robert W. Coakley, ed., *A Guide to the Study and Use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 S. Army, 1988), p.11.

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로 이지만, 해군 장교들 역시 전투가 끝난 후 작전경과 보고서 작성할 때 그 당시 자신이 내렸던 결심, 자신이 취했던 행동들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고서 작성 시 그들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한 후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선택했고, 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자신의 결정은 합리적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려 한다. [...] 그러나 내가 전투현장을 직접 지켜본 결과, 전투가 작전경과보고서의 내용처럼 순조롭게 진행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전투의 승리는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아군 지휘관의 기민하고 탁월한 결심보다는 적군 지휘관의 예상치 못한 실수로 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도 깨달았다.⁴¹⁾

이러한 작전 관련 문헌기록의 제한점을 인식한 모리슨은 해전의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전투의 진행과정을 목격한 다음, 이 경험을 토대로 관련 문서의 진실성을 확인하고 생산자 또는 기록자의 선입견이 반영되었는지를 검토했다. 그리고 특정 전투에 관해 서로 상반된 내용을 담은 다양한 문헌기록의 경우에는 이를 서로 비교하여 검토한 다음 자신이 나름의 기준으로 선별하여 사료로 활용했다.

한편 수백여 년 전 벌어졌던 역사적 사실을 재구성한 『콜럼버스 전기』와는 달리 『해군 작전사』는 불과 수 년 밖에 경과되지 않은 당대사를 서술하는 작업이었다. 당대사 연구할 때는 아직 사실관계가 정확히 규명되지 않은 사건과 선불리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들을 다룬다는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에 당시 현장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대부분 생존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과 인터뷰를 역사 서술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있었다. 그는 구술 기록은 문헌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사건의 내적 영향요소 - 지휘관의 개인적 성향, 특정 행동을 결정하게 된 심리적 요인 등 - 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사료라고 판단했다.⁴²⁾ 그렇지만 모리슨은 구술기록의 제한점 역시 인식하고 있었다. 참전자들이 긴장되고 혼란스러운 전투의 과정 중 겪은 내용을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 완벽히 기억해 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증언의 내용을 완벽히 신뢰할 수는 없었다. 결론적으로 당대사 서술의 제한점을 극복하기

41) Morison, *Vistas of History*, pp.33-34.

42) Samuel Eliot Morison, "Faith of Histori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LVI, No.2, (January, 1951), p.271.

위해 모리슨은 관련인물들의 구술기록을 활용하여 문헌기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 노력했다. 동시에 문헌기록은 “역사가가 참전자들의 증언을 듣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동조되어 즉흥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방향타”로 활용했다.⁴³⁾

또한 모리슨은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끝나는 전쟁의 본질 상 전투의 승자와 패자가 나눌 수밖에 없는데, 패자에게는 좋은 싫든 간에 그에 따른 책임과 비난이 뒤따르기 마련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특히 패전 사례의 경우 공정한 서술을 저해하는 역사가의 개인적 감정이나 대중의 여론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는 점을 경계했다.⁴⁴⁾ 모리슨은 해군 군함에 동승하여 전투를 직접 참관하면서 포탄이 빗발치는 혼란스러운 전투의 현장에서 지휘관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했다. 이를 통해 모리슨은 해전 중 지휘관들의 실수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며, 지휘관의 결정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했다 하더라도 이를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간주했다.⁴⁵⁾ 지휘관의 결정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 한편으로 모리슨은 대중들에게 호소력이 있는 살아있는 역사 서술이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나름의 건전한 평가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가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명확한 사실에 대한 강조, 주의환기, 후대를 위한 경계 등은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⁴⁶⁾ 구체적 사례를 들어 미국 해군의 준비태세 부족을 지적하는 아래의 모리슨의 강조는 독자들에게 앞으로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주고 있다.

미국 해군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다. 그러나 전쟁 이전 준비태세가 취약하여 승리를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다. 미국 해군은 이미 항공기가 해전의 주역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직전까지 수상함 중심의 거함거포사상을 버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본 항공대의 진주만 기습에 전혀 대비하지 못했으며, 태평양전쟁 초기 항공기 성능, 조종사 기량 등에서

43) Morison, *Naval Operations*, Vol. I, *The Battle of the Atlantic*, pp. x-xi.

44) Morison, *Vistas of History*, pp.30-31.

45) Morison, “Faith of Historian,” p.272.

46) Morison, *Vistas of History*, pp.44-45; *Naval Operations*, Vol. V, *The Struggle for Guadalcanal*, p.iii.

도 일본에 한참 뒤쳐졌다. 그리고 영국 해군으로부터 독일의 유보트를 상대로 축적한 대잠전 경험 및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을 소홀히 한 나머지 전쟁 초반 유보트의 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미국 해군은 전쟁발발 후 2년이 지난 1943년 중반까지도 일본의 구축함 운용전술을 따라잡지 못했으며, 1943년 후반이 지나서야 야간전투전술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 미국 해군이 향후 발생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자 한다면 평시부터 고도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⁴⁷⁾

IV. 『해군 작전사』에 대한 평가

1. 당대사 서술에 따른 한계

모리슨은 해군 작전사를 집필 시 미국 측 사료 뿐 아니라 종전 직후 수집한 상대측 사료도 활용하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미국 측 사료가 주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었기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서술은 객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당시 자신이 주목했던 사료가 유용성이 없다고 밝혀질 수도 있고, 쓸모없다고 판단한 사료의 가치가 재평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역시 인정했다.⁴⁸⁾

현재까지 가용한 사료를 바탕으로 나의 지식과 능력을 총동원하여 『해군 작전사』를 집필하였으나, 여기에 서술된 내용이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차후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면 이 책에 포함된 내용의 각종 오류도 자연스레 드러날 것이다. 또한 후대 연구자들은 새로 발굴된 사료를 바탕으로 나오는 다른 시각으로 해전을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건을 다루는 당대사를 연구하는 역사가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 할 수 있다.⁴⁹⁾

47) Samuel Eliot Morison, *The Two-Ocean War: A Short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Second World War*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63), pp.578-579.

48) Morison, *Naval Operations*, Vol. I, *The Battle of the Atlantic*, p. x.

49)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IV, *Coral Sea, Midway, and Submarine Action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8), pp.ix-x.

그는 머지않아 일부 역사가나 대중들이 『해군 작전사』의 내용에 오류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술방식이나 내용 구성에 대해 비판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해군 작전사』가 출판됨에 따라 전투현장에 있었던 일부 참전용사들이 모리슨의 서술 내용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수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수정요구 발생으로 인해 모리슨은 1950년 이전 출간된 『해군 작전사』 대부분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다.⁵⁰⁾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해전사를 서술한다면 정확한 사료에 근거하여 비교적 높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모리슨은 시간이 흘러 기억이 점차 흐릿해진다면 “전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작전을 준비할 때 흐르는 긴박함과 긴장감, 적함과 전투 중 발생하는 격렬함, 어려운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을 때의 벅찬 환희, 그리고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전사한 전우에 대한 슬픔의 감정을 (독자들에게) 그대로 전해줄 수는 없을 것”⁵¹⁾이라 확신했다. 모리슨은 대중들이 이를 읽지 않으면 그것은 쓸모가 없는 역사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전쟁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해전의 생생한 모습을 대중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모리슨이 당대사 서술의 어려움을 인식하였음에도 『해군 작전사』를 발 빠르게 세상에 내놓으려고 것은 전쟁 초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를 일궈낸 해군의 활약상을 대중들에게 알리고자 한 역사가로서 일종의 책임감과, 『해군 작전사』의 출판을 통해 그동안 해양사가로서 쌓아왔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개인적 야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지휘관의 행동에 대한 과도한 비평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리슨은 전투 중 지휘관은 적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한 결심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결심과정에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전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는 역사가는 당시 지휘관이 왜 그러한 결심을 내렸는지 평가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역사가는 당시 지휘관의 결심에 영향을 준 요소들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차후 추가적으로 밝혀진 사실 등을 소급적용하여

50) 『해군 작전사』총 15권 중 7권이 이러한 수정요구를 반영하여 개정되었다.

51) Morison, *Naval Operations*, Vol. I, *The Battle of the Atlantic*, p. x.

그 당시 지휘관이 올바르게 행동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⁵²⁾

모리슨은 이러한 객관성의 원칙을 전쟁 중반의 서술까지는 비교적 잘 유지했다. 예를 들어 진주만 기습의 책임문제에 대해 모리슨은 자신이 직접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고 진주만 의회합동 청문회에 제출한 킹 참모총장의 조사보고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⁵³⁾ 그러나 전쟁 후반부의 서술로 갈수록 지휘관의 결심과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휘관의 결심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평가는 1958년 출간된 『해군 작전사 제 12권: 레이테 해전(Vol. XII, *Leyte, June 1944–January 1945*)』에서 나타났다. 모리슨은 1944년 10월 벌어진 레이테 해전에서 3함대 사령관 할시(William F. Halsey) 제독이 레이테 섬(Leyte Island) 북방에 있던 일본 항공함대의 유인전술에 말려들어 산베르나르디노 해협(San Bernardino Strait)을 비운 채 전 함대전력을 이끌고 북상한 것에 대해 통렬한 비판을 가했다. 모리슨은 당시 할시 사령관이 대다수 참모들과 예하 지휘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할시 제독의 자기중심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성향이 문제의 단초가 되었다고 서술했다.⁵⁴⁾

큰 타격을 입어 기동이 제한될 것이라는 할시 제독의 예상과는 달리, 구리다(Kurita Takeo)의 타격부대는 별다른 방해받지 않고 계속 항진하여 산베르나르디노 해협을 통과하여 레이테 섬 근해로 진출했다. 만약 당시 지휘관이 (할시가 아니라) 넬슨(Horatio Nelson) 제독이었다면 프리깃함 한척 정도는 해협에 배치하여 적 함대의 이동을 감시하도록 했을 것이다. 어떻게 범선시대도 아닌 항공기가 주역인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 할시가 구축함 한 척 만이라도 산베르나르디노 해협 입구에 배치해 두었다면 접근하는 구리다 함대를 사전에 탐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⁵⁵⁾

이렇게 우세한 전력을 보유하고도 구리다 부대의 진격을 막지 못한 할시는 비

52)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VIII, *New Guinea and the Mariana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3), p.315.

53)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III, *The Rising Sun in the Pacific*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8), pp.127–142.

54) Morison, *The Two-Ocean War*, pp.222–223.

55)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XII, *Leyte, June 1944–January 1945*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8), pp.247.

관한 반면, 열세한 전력으로 구리다의 부대의 공격을 막아낸 스프레이그(Clifton A. T. Sprague)의 활약은 미국 해전사에 길이 남을 “감투정신의 표본”이라며 치켜세웠다.⁵⁶⁾ 이러한 모리슨의 평가가 공개되자 당사자인 할시 제독은 격렬히 반발했다. 할시는 자칭 해군 역사가라고 떠돌고 다니는 “모리슨이라는 놈(son-of-a-bitch named Morison)”이 지휘관의 정당한 결심을 비난했다며 크게 분개했다.⁵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시 제독에 대한 모리슨의 비판은 계속되었다. 1959년 출간된 『해군 작전사 제13권: 필리핀 해방(Vol. XIII, *The Liberation of the Philippines*)』과 이듬해 출간된 『해군 작전사 제14권: 태평양의 승리(Vol. XIV, *Victory in the Pacific*)』에서 모리슨은 할시가 태풍이 올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함대를 이동시켜 막대한 전력의 피해를 입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⁵⁸⁾ 이 사고 이후 해군 징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할시의 해임에 대해 논의했으나 할시는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지휘관직을 그대로 유지하였다.⁵⁹⁾ 모리슨은 이러한 해군당국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이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과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제 식구를 감싸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행태라고 꼬집기도 했다.⁶⁰⁾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모리슨은 해전을 직접 목격했던 경험을 근거로 들며 지휘관의 결정에 대한 평가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휘관의 결정에 대한 모리슨의 적극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는 『해군 작전사』의 출간 연도가 경과할수록, 그리고 서술 시기가 전쟁의 후반으로 갈수록 강화되었다. 이러한 객관성에 대한 시각의 변화는 모리슨이 강조한 대중에 대한 역사가의 책무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역사가가 과거의 사실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장래의 교훈을 발견했다면 그 내용이 사회적 통념에 반대된다 하더라도 이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것이 역사가의 의무라고 보았다.⁶¹⁾

56) Morison, *Naval Operations*, Vol. XIII, *Leyte, June 1944-January 1945*, pp.337-338.

57) Gregory M. Pfitzer, *Samuel Eliot Morison's Historical World*, p.246 재인용.

58) 1944년 12월, 할시 제독은 태풍이 자신의 함대 쪽으로 올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고 사전에 태풍을 피하라는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할시의 함대는 3척의 구축함이 침몰하고 수백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다.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XIII, *The Liberations of Philippine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8), pp.59-71. 1945년 6월 할시가 지휘하는 함대에 또다시 태풍이 강타하여 여러 전투함이 파손되고 수십 대의 항공기가 바다로 추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Vol. XIV, *Victory in the Pacific*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61), pp.298-307.

59) 당시 해군 지휘부는 이미 국민적 영웅이 된 할시를 해임하는 것은 일본군의 사기만 올려주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하였다.

60) Morison, *Naval Operations*, Vol. XIV, *Victory in the Pacific*, p.308.

1943년 과달카날 전역의 승리 이후 미국은 차례로 태평양의 일본 도서를 점령하면서 일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1944년경이 되면 미국 해군은 전력 면에서 이미 일본 해군을 압도하고 있었다. 따라서 마리아나 해전 시 일본 함대를 추적하지 않았던 스프루언스(Raymond A. Spruance)의 결정도, 레이테 해전 시 일본 함대의 유인전술에 말려들어 구리다의 타격부대를 놓친 할시의 행동도 모두 미국 해군의 승리라는 전쟁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⁶²⁾ 따라서 모리슨은 자신의 기준에 입각하여 해전을 지휘한 인물의 과오를 가감 없이 서술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평가를 내림으로써, 독자들에게 교훈을 제공하고 후대의 해군장병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⁶³⁾ 모리슨은 자신의 실제 경험과 증거를 기반으로 누구나가 객관적이라고 인정하는 해전의 역사를 보여주려 노력하였지만, 대중의 욕구 충족이라는 보다 큰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이다.

V. 맺는말

생애 초기부터 바다와 해군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던 모리슨은 대중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바다와 관련된 이벤트를 기획하고 이를 역사 서술과 접목시키는 능력이 뛰어났다. 예를 들어 모리슨은 콜럼버스 항해 탐사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행적을 재현한다는 것을 부각시켜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받았으며, 루스벨트 대통령의 지원까지 이끌어 냈다. 또한 현직 하버드대 역사학 교수의 해군장교 임관 및 제2차 세계대전 중군은 그 자체가 큰 기사거리였다. 그리고 모리슨은 이러한 노력을 단순한 이벤트로 끝내지 고 실증적 연구와 문학적 서술을 더한 결과물로 만들어 대중들에게 내놓았다. 1948년부터 1962년까지 15년에 걸쳐 총 15권으로 출판된 『해군 작전사』에서

61) Morison, "Faith of Historian," p.265.

62) Samuel Eliot Morison, "Thoughts on Naval Strategy, World War II,"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XX, No. 8 (1968), p.9.

63) 반면 미국 해군이 공식 발간한 전투 보고서에서는 할시의 결정에 대해 이렇다 할 평가를 내리지 않고 있다. 단지 당시 할시는 오자와의 북방함대가 항공기를 거의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전 함대전력을 이끌고 북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만 언급하고 있다. Walter Karig, Russell L. Harris, and Frank A. Mason, *Battle Report*, Vol. IV, *The End of an Empire* (New York: Rinehart and Company, 1948), pp.380-381.

모리슨은 자신의 실제 경험과 방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어난 미국 해군의 작전과 전투를 세부적이고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리슨의 대중을 겨냥한 활발한 활동과 저술의 이면에는 자기과시욕과 성취욕이 일정부분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궁극적 동기는 역사는 대중들과 유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의 신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낭만주의 역사가 파크만의 영향을 받아 스스로를 “바다의 파크만”이라 칭했던 모리슨은 역사 서술 시 대중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그가 추구한 대중성과 객관성은 『해군 작전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종종 충돌하였고, 그 때마다 그는 대중성을 더욱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해군 작전사』가 출판되자 일부 인사들은 내용의 정확성에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모리슨에게 비판을 받은 인물들은 그의 역사 서술의 객관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이러한 어려움과 비난을 이미 예상했음에도 모리슨은 역사 서술 시 객관성 역시 중요한 요소이나, 역사가는 대중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는 19세기말 미국의 대표적 해전사 연구 성과라 할 수 있는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이하 『해양력의 영향』)과 대비된다. 해군 장교이자 해양전략가였던 마한이 『해양력의 영향』을 서술한 근본적 목적은 과거 해전의 모습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해전의 경과를 나름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재구성한 후 이를 해양전략의 원칙을 수립하고 미국 해양력 팽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고자 했다.⁶⁴⁾ 결국 마한에게 해전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해전의 사례를 통하여 해양력의 이론을 이끌어 내기 위한 수단 내지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모리슨이 『해군 작전사』를 서술한 근본적 목적은 대중들에게 해군의 활약상을 널리 알리고 해전의 경과를 상세하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선명한 목적의식 하에 역사적 사실을 취사선택한 『해양력의 영향』은 일반 대중들 보다는 관료들과 정치가들을 겨냥한 작품이었다. 반면에 모리슨은 현장에서 얻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의 사실을 비교적 객관적으로 조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도출한 교훈을 제시함으로써, 『해군 작전사』가 대중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되게 하였다.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는 최초 출간 된지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을

64) Alfred Mahan,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first edition 1890,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7), pp.1-2.

거듭하고 있다. 또한 미국 해군장교들의 필독도서로써 주기적으로 그 서평이 발표되는 등 그 대중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⁶⁵⁾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는 학술적 전문성 역시 갖추어 제2차 세계대전 시 미국 해군과 일본 해군의 작전 및 전투사를 연구할 경우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입문서 또는 안내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 소개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해전사와 관련 대부분의 연구 성과가 모리슨의 저작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⁶⁶⁾ 또한 모리슨의 해전사 서술 방법론은 이후 미국의 해전사 연구 경향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해전사 교수인 포터(E. B. Potter)와 니미츠(Chester W. Nimitz) 제독이 공동으로 편집한 『해양력: 해군사(Sea Power: A Naval History)』이다.⁶⁷⁾ 이 책은 미국 해군사관학교 역사학 교수진의 학문적 연구 성과에 태평양전쟁 시 해군작전을 총지휘했던 니미츠 제독의 실제 경험을 접목시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전의 양상을 알기 쉽고 상세하게 서술한 것으로써, 현재에도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해전사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해군 작전사』의 또 다른 가치는 이제까지 주류역사의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해양사, 특히 해군사에 대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20세기 전반까지도 미국 역사학의 주된 관심은 정치, 경제 및 사회분야 등이었다. 이러한 지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모리슨은 “일종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평생 바다에 관해 연구하고 바다에 관한 글을 썼다.⁶⁸⁾ 당시까지도 대부분의 역사는 육지에서 벌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바라본 역사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다와 해상 역시 인류 역사의 중요한 활동 및 경쟁 무대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다에서 벌어진 일들의 역사, 특히 바다를 무대로 활동하는 해군의 역사에 대해 대중들이 폭넓은 관심을 갖도록 한 것은 『해군 작전사』의 또 다른 의의라고 할 것이다.

65) James D. Hornfischer, “Battle Station,” *Smithsonian Magazine*, Vol.41, Issue 10 (Feb., 2011), pp.80–92; T. R. Williams, “Why I Read Morison,”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2, Issue 6 (Jun., 2016), pp.69–71.

66) 국내 출간된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해전사 연구 성과는 이정수, 『海戰史: 第2次 世界大戰』(서울: 남영문화사, 1981); 『大海戰: 바다를 재패한 자가 세계를 정복했다』(서울: 정음사, 1986); 해군대학편, 『世界海戰史』(대전: 해군대학, 1998) 등이 대표적이다.

67) E. B. Potter, and Chester W. Nimitz, eds., *Sea Power: A Naval Hist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0). 이 책의 편집자 역시 서문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부분은 모리슨의 『해군 작전사』를 주로 참고했다고 밝히고 있다.

68) Emily Morison Beck, ed., *Sailor Historian*, p. xxiii.

참고문헌

1. 1차 자료

- Morison, Samuel Eliot,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15 Vol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7–1962).
- I. *The Battle of the Atlantic*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7; revised edition 1954).
- III. *The Rising Sun in the Pacific* (1948; revised edition 1954).
- IV. *Coral Sea, Midway, and Submarine Actions* (1948; revised edition 1954).
- V. *The Struggle for Guadalcanal* (1949; revised edition 1954).
- VI. *Breaking the Bismark Barrier* (1950; revised edition 1954).
- VIII. *New Guinea and the Marianas* (1953).
- XII. *Leyte, June 1944–January 1945* (1958).
- XIII. *The Liberations of Philippines* (1961).
- XIV. *Victory in the Pacific* (1961).
- Morison, Samuel Eliot, *The Maritime History of Massachusetts, 1783–1860*,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21).
- _____, *The Oxford History of United States*, 2 Vol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27).
- _____, *The Founding of Harvard Colle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5).
- _____, *Harvard College in the Seventeenth Century*, 2 Vol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 _____, *Three Centuries of Harvard, 1636–1936*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36).
- _____, “Life Resails Columbus’s Routes,” *Life*, Vol.8, No.13 (25 March 1940).
- _____, *Admiral of the Ocean Sea: A Life of Christopher Columbus*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42).
- _____, “The Great Enterprise,” *Time*, Vol.39, No.9 (02 Mar., 1942).
- _____, “Faith of Historian,”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LVI, No.2, (January, 1951).

- _____, "History as a Literary Art," in *By Land and By Sea* (New York: Alfred A. Knopf, 1953).
- _____, "Prescott: The American Thucydides," *The Atlantic Monthly*, Vol.200, Issue 5 (Nov., 1957).
- _____, *John Paul Jones: A Sailor's Biography*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9).
- _____, *The Two-Ocean War: A Short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in the Second World War*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63).
- _____, "The Experiences and Principles of an Historian," in *Vistas of History* (New York: Alfred A. Knopf, 1964).
- _____, *Commodore Matthew Calbraith Perry, 1794-1858*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67).
- _____, "Thoughts on Naval Strategy, World War II," *Naval War College Review*, Vol.XX, No.8 (1968).
- _____, *The European Discovery of America. Vol. II, The Southern Voyages, A.D. 1492-1616*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Morison, Samuel Eliot, ed., *The Francis Parkman Reader* (Boston, MA: Little, Brown and Company, 1955).
- Morison, Samuel Eliot, and Henry Steele Commager, *The Growth of the American Republic*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30).

2. 2차 자료

1) 단행본

- 이정수, 『海戰史: 第2次 世界大戰』 (서울: 남영문화사, 1981).
- _____, 『大海戰: 바다를 재패한 자가 세계를 정복했다』 (서울: 정음사, 1986).
- 해군대학편, 『世界海戰史』 (대전: 해군대학, 1998).
- Beck, Emily Morison, ed., *Sailor Historian: The Best of Samuel Eliot Morison* (Boston, MA: Houghton Mifflin Company, 1977).
- Jessup, John E., and Robert W. Coakley, eds., *A Guide to the Study and Use of Military History* (Washington D.C.: Center of Military History, U.S. Army, 1988).

- Karig, Walter, Russell L. Harris, and Frank A. Mason, *Battle Report*. Vol.IV, *The End of an Empire* (New York: Rinehart and Company, 1948).
- Levin, David, *History as Romantic Art: Bancroft, Prescott, Montley, Parkma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9).
- Mahan, Alfred,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 1660-1783* (first edition 1890,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87).
- Pfitzer, Gregory M., *Samuel Eliot Morison's Historical World* (Boston, MA: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1991).
- Potter, E. B. and Chester W. Nimitz, eds., *Sea Power: A Naval Hist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60).
- Reynolds, Clark G., *Famous American Admirals* (Annapolis, MD: Naval Institute Press, 2002).
- Thucydides, Sir Richard Livingstone, ed. and trans., *The History of the Peloponnesian War* (Oxford University Press, 1943).

2) 논문, 연구보고서

- 양홍석, “역사가 프란시스 파크만(Francis Parkman)의 서부와 인디언관,” 『미국사연구』, Vol.30 (2009).
- Bates, Richard W., *The Battle of Savo Island, August 9th, 1942: Strategical and Tactical Analysis*, (Newport, RI: Naval War College, 1950).
- Culter, Thomas J., “Amphibious Historian,”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0, Issue 2 (Feb., 2014).
- Hattendorf, John B., “The Uses of Maritime History in and for the Navy,” *Naval War College Review*, Vol.56, No.2 (2003).
- Herold, David, “Samuel Eliot Morison and the Ocean Sea,” *Dalhousie Review*, Vol.54, No.3 (1974).
- Hornfischer, James D., “Battle Station,” *Smithsonian Magazine*, Vol.41, Issue 10 (Feb., 2011).
- McFee, William, “The Discoverer,” *Nation*, Vol.154, No.11 (14 Mar., 1942).
- Mattingly, Garrett, “Professor with a Roll,” *New Republic*, Vol.106, No.10 (09 Mar., 1942).
- Taylor, P. A. M., “Samuel Eliot Morison,” *Journal of American Studies*, Vol.10, No.1 (1977).
- Washburn, Wilcomb E., “Samuel Eliot Morison, Historian,” *The William and*

Mary Quarterly, Vol.36, No.3 (Jul., 1979).

Williams, T. R., "Why I Read Morison," *U.S. Naval Institute Proceedings*, Vol.142, Issue 6 (Jun., 2016).

Witthill, Walter Muir, "In Memoriam: Samuel Eliot Morison(1887-1976)," *The New England Quarterly*, Vol.49, No.3 (1976).

3) 인터넷 자료

Naval History and Heritage Command, "Biography of Rear Admiral Samuel Eliot Morison, 9 July 1887-15 May 1976," <http://www.history.navy.mil/research/library/research-guide/morden-biographical-files-ndl/morden-dios-m/Morison-Samuel-Text.html>(검색일: 2017.5.11).

"USS *Samuel Eliot Morison* (FFG 13)," <http://www.navsource.org/archives/07/0713.htm>(검색일: 2017.5.10).

Abstract

**Historian Samuel Eliot Morison and Writing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Kim Hyun-Seung*

Samuel Eliot Morison (1887-1976) was one of the pre-eminent historians of his generation. He was not only a famous historian at that time, but also was promoted to the rank of Admiral in U.S. Navy Reserve. Fifteen volum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was published between 1947 and 1962, was not only 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Navy's projection of power over two oceans, but a classic of historical literature that stands as the definitive treatment of its subject. Although he was fifty-five when war came to America in December 1941, Samuel Eliot Morison was determined to play a role. A professor at Harvard at the time, he joined volunteering for duty in the Navy. An experienced sailor, Professor Morison had earlier sailed the same routes taken by Christopher Columbus while researching his biography, *Admiral of the Ocean Sea*, which appeared in January 1942 to much acclaim and later got a Pulitzer Prize. Thus Morison plunged into the war, crossing the Atlantic aboard a destroyer.

He assumed himself as "Parkman on the sea", tried to follow Parkman's historiographic method, not only participatory history but also literary style. And during writing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He emphasized two principles, publicity and objectivity. In terms of publicity,

* Lieutenant Commander of the ROK Navy, Department of Operation at the ROK Naval Academy, International Area Studies(Major in Chinese Area) Doctoral Cours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he always worried about who read history and why. In his pamphlet, “History as a Literary Art”, he asserted it is useless if readers do not read a history which historians wrote. So he thought historians have forgotten that there is an art of writing of history. Therefore, he built his narratives around brightly rendered visuals and used the present tense to describe actions he witnessed firsthand, he wrote of the U.S. combat in very vividly. But strongly driven by publicity, he sometimes lost his balance in writing the naval history. For instance, the naval history became the focus of criticism for its prejudiced comments about the commanders. Also some reviewers asserted he did not secure the objectivity on writing the naval history.

Although he sometimes deliberately torpedoed the objectivity of his work for strengthening publicity, by writing an extensive U.S. naval history, he introduced maritime history and naval history to the public widely. Until in early twentieth century, U.S. historians usually had been focusing their effort to the traditional areas, for example politic, economy, and etc. His intensive effort on the operations of U.S. Navy in World War II aroused a public interest in maritime and naval history. In conclusion, through using literary style and realistic narratives, historian Morison wrote a naval history for all the people which could appealed to the public.

Key Words: Samuel Eliot Morison, The History of United States Naval Operations in World War II, Naval History, United States Navy, World War II